

## 원발성 폐암에 대한 임상적 고찰

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흉부외과  
 김 광 택 · 김 연 수 · 이 성 호 · 이 현 재 · 이 인 성 · 김 형 목

고대안암병원에서 1988년 1월부터 1995년 7월까지 병리학적으로 진단된 원발성 폐암 환자 5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이들을 대상으로 최근 다발하는 폐암의 종류 및 발생빈도의 변화, 흡연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.

전체 541명의 환자중 남성이 423 (78.2%), 여성이 118 (21.8%)명이었다. 임상병리는 I기가 41명, II기가 34명, IIIa기가 112명, IIIb기가 159명, IV기가 148명이었으며 병기를 정하지 못한 군이 47명이었다. 많이 호발한 병리조직형은 편평상피세포암 244명 (45.1%)였으며, 선암 144명 (26.6%), 소세포암 107명 (19.8%), 거대세포암 11명 (2.0%)의 빈도를 보였다. 남성에서 호발하는 병리조직형은 편평상피세포암(222명, 52.4%), 선암(86명, 20.3%), 소세포암(84명, 19.6%)이었다. 여성에서 호발하는 병리조직형은 선암(58명, 49.1%), 소세포암(23명, 19.5%), 편평상피세포암(22명, 18.6%)이었다.

	편평상피암	선 암	소세포암	거대세포암
남 자	222(52.4%)	86(20.3%)	84(19.6%)	9(2.1%)
여 자	22(18.6%)	58(49.1%)	23(19.5%)	2(1.7%)
총 계	244(45.1%)	144(26.6%)	107(19.8%)	11(2.0%)

흡연자에서는 편평상피세포암이 52.5%, 선암이 20.3%, 소세포암이 20.0% 이었고, 비흡연자에서는 선암이 50.0%, 편평세포암이 25%, 소세포암이 5.8%의 순이었다.

연도별 비교분석에서 여자환자의 비는 88년 14.3%에서 94년 28.3%로 전체 환자중 여자환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다. 선암의 경우 88년 14.3%에서 93년 29.8%, 94년 33.3%로 점차 증가하였다.

선암의 경우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고, 편평세포암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94년 43.3%로 아직도 가장 많은 병리조직형으로 나타나고 있다.